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변함없는 아버지 사랑

성경: 이사야 49장 13~19절

Tag: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과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사49:13-19)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위로의 말씀이다.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나,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고난을 잊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자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지위와 나라와 식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우상숭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 두셨다.

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6:13)

그런데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의 실체는, 사실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그루터기였다. 씨는 나무에 비하면 그 모습은 겨우 잘 살펴야 보이는 존재다. 그러나 그 씨 속에 나무의 모든 DNA가 담겨있다. 그런데 그 씨의 실체는 ‘거룩한’ 씨다. 즉,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겨진다는 뜻이다. 제대로 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게 간직하고 있는 거룩한 씨가 그 실체이다. 이 거룩한 씨가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은 갖은 고난을 당하였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의 나라는 망하였고, 이방 땅에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포로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결코 풍요롭거나, 행복하지 않았다.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땅은 황폐하였고, 심지어 그들은 자녀들을 잃어버리기까지 하였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결코 그 쓰라린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가, 언제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메시아 예언)

6 그가 이르시되 네가(메시아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압제와 고난과 받은 핍박과 자식을 잃은
슬픔까지도 다 갚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특히 이사야 49장은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 결코 어머니는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물들도 자기 새끼 아낄줄은 안다.(구피 빼고)
성경에서도 결코 새끼 빼앗긴 암컷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할
정도다.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종족은 사람이지만 아닐까. 모든 부모의
마음을 한결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모도 환경 때문에 자녀를
버린다.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도 하고, 사건 사고로
자녀를 잃기도 한다. 군대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도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기가막힌 상황들. (동백이 엄마가 동백이를 고아원에 맡긴
사연, 동백이가 아들 필구를 남편에게 맡기는 사연도 비슷한 이유
때문.)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아이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평생토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내가 그 때 왜 그랬을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원인이 된 듯
하여 고통받으며 살아간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가
고통 당하면 그게 부모의 죄인 것 같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잊을 수 없다.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잊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나요,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신가요 묻는다.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젓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무너진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결코 잊지 않았음)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것으로 위로 삼으라는 말씀은 아니다. 그것도 고맙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자식들까지 회복시키신다.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 보아라. 너의 잃었던 자식들이 다 모여 네게로 모여들 것이다.

21 그 때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마치 꿈을 꾸는 듯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세상에 자녀가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차지해야 할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행복일 것이다.

가정의 가치, 식구의 가치, 부모의 가치, 자녀의 가치, 그 모든 가치를 지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만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연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램은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도 결코 잊지 말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변함없는 가정의 가치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17절 /

Tag:

1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0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전7:1-17)

4,5절; 부부는 서로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못한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부부.

식구의 정의는 식구는 식구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

식구보다 덜한 관계가 형제관계. 그러나 교회는 형제관계이다.

교인끼리 식구 되려면 결혼해야 함. 형제 관계는 서로 나누는 관계.

형제끼리 희생하면? 가장 최상의 사랑. 칭찬받을 사랑. 영웅적 사랑.

6,7절; 바울의 처지와 각자 다양한 사연들에 대해서 율법적이지 않으려는 바울의 태도.

why? 인간관계의 다층적 구조 때문;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 사상적,

경제적, 생리적, 성적, 생활습관(의식주), 유전적, 윤리적, 언어적, 심리적 차이와 호불호, 태도, 이해력, 해석, 배려, 인내, 해결 지혜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관계가 유지됨.

10~13절;신앙과 이혼문제. 신앙이 이혼 사유가 됨. 불륜은 강력한 이혼사유. 영화배우가 이혼이 잦은 이유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쉽게 사랑에 빠지고,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너무 사랑이 빨리 식으며, 너무 관계가 많아 다른 사랑에 쉽게 빠지기 때문. 불륜은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의 파탄이기 때문. 아름다움과 매력이라는 치명적 저주.

16~17, 20;구원을 위한 현상유지도 의미가 있음. 이혼과 재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난관도 문제. 외모가 치명적이지 않다면 오히려 이혼이 치명적임.

37~38;독신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결혼생활만 매력적인 것은 아니다.

39;사별로 인한 재혼;사람마다 다름. 그냥 지내는 것도 복.